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역 임시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無'

이산화탄소 줄이기 실천 의지 없어 '우려'... 이용자 불편 가중 철도공단 측 "선상통로·주차타워 만들 때 충전시설 만들 것"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구가 불살을 앓고 있어 공공기관의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함에도 전주역은 이산화탄소 줄이기 실천 의지가 없어 우려스럽다. 전주역이 역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150여 면이 넘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으나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혀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바,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다면 전기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전주역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 텐데도 법령 미비를 이유로 충전시설 설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 이용 승객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주역사 신축 공사는 2023년 5월 1일 시작해 현재 1년 3개월이 넘었고, 앞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약 2년여간 장애인 고령자 등 노약자 승객은 물론 전기차량

소유 승객들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여 시급한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전주역 임시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법령 미비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전주역 측과 설치 문제를 신속히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나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태도 보다는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의 행정으로 보여 아쉬웠다. 또한,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주역 뒤편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정식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를 시일 안에 선상 연결 통로를 개설하면서 주차타워도 건설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만들어 승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선상 연결 통로는 연내 착공

예정이며, 현재 착공을 시작하지도 않아 언제 전기차 충전시설이 만들어질지 알 수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다. 코레일 전북본부도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내년 초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정식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타워 건설 시에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 예정으로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정식 주차장 건립과 주차타워 건설은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아 언제 만들어질지 요원한 상황이다.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한 승객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량 이용 승객은 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내연기관 차량은 앞으로 생산하지도 않고 친환경 차량만 생산할 예정인 만큼 하루빨리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역이 역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150여 면이 넘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으나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혀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전주역 임시주차장의 모습이다.

LIG넥스원, 새만금 실증테스트베드 첫 주인

전북자치도·새만금청·부안군·KTL 등과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 부안초입지서 드론 시험·연구·실증 착수 등 추진

새만금을 미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이끌 시험 무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만금 민·군 겸용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이 국내 유력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의 참여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사진 3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시험 및 실증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군 간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IG넥스원은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 △민·군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 및 관련 인증 체계 구축 △첨단 기술 연구 개발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활용 및 관

련 연구시설 조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협약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LIG넥스원 등이 드론 실험 실증시험을 착수할 수 있도록 새만금 부안초입 부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드론, UAM, AI 자율주행, 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산업에 대한 실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새만금이 육·해·공 복합 실증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첨단 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놓았을뿐더러, 이번 협약에 참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새만금 일원에 대한 첨단 기술 인증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시험인증평가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수행하

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테스트베드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핵심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하여 민과 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 및 관련 기업·기관 유치에 따른 기업·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새만금 실증테스트베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가 연구기관의 추가 실증 수요 확보와 관련 기업·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운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10.2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드론 등 민·군 겸용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첨단 방위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전주대 유치 확정

호남 최초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본교에 전북특별자치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해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의 주요 사업 외에도 지역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상생 지원, 지역 맞춤형 IT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학과의 인재 양성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15개 공공기관 및 기업과 함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월 19일 카카오의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테크 부트캠프'를 방문, 실질적인 협력 성과 도출을 위한 디지털혁신센터의 선행 모델을 점검했다. 그 결과 올해 전주대학교에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한편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 문을 여는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는 호남 지역 최초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 지역 디지털혁신센터다. 박진배 총장은 "우리 학생들과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의 전문성을 직접 경험하고, 더 큰 꿈을 꾸며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1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24. 9.5.(목) - 9.8.(일) 4일간
장수읍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

RED FOOD FESTIVAL

빨간 맛으로의 초대

주최 장수군 주관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축제 2024